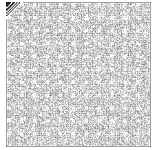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51호 2021년 8월 1일(나해)

연중 제18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70(69),2,6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1독서 | 탈출 16,2-4,12-15

화답송 | 시편 78(77),3과 4ㄱㄷ,23-24,25와 54(◎ 24ㄴ 참조)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

○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

○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

제2독서 | 에페 4,17,20-24

복음환호송 | 마태 4,4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 요한 6,24-35

영성체송 | 지혜 16,20 참조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구요비 윤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내가 생명의 빵이다!”(요한 6,35)

저는 1970년대 신학생 시절에 남미 교회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 새로운 신학의 성서적 근거인 ‘탈출기’를 읽으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강제 노역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가엾이 여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야훼 하느님의 걱정과 연민에 열광하며 ‘세상에 열린 신앙’, ‘사회적인 관심’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 ‘탈출기’를 영적으로 해설한 니짜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책 <모세의 한평생>(최익철 신부 역)을 읽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인은 이 책에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 뵙고 일치하는 여정에서 모세를 영적으로 ‘완덕(完德)의 정상’에 도달한 분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탈출기의 역사를 이 세상의 온갖 탐욕으로 노예 상태에서 사는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탈바꿈하고 성장하며 겪어야 할 영적인 투쟁과 수덕의 과정으로 해설합니다. ‘완덕은 영적인 진보에 있다.’라는 성인의 관점은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말씀에 도달하기 위한 지침서처럼 보입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에페 4 22-24)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당신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요한 6,27)라고 촉구하십니다.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인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지만, 또한 인간의 본성 안에 깃들어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모든 갈망은 하느님께서 통교(communio)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인간의 마음 안에 심어주신 당신을 향한 향수(nostalgia)라고 하겠습니다.

“오 하느님,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열망을 찬미합니다!”(앙트안느 슈브리에 신부)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목마름과 인간의 거룩한 갈망을 하나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순결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히브 11,1)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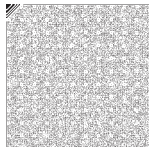
용소막성당 가는 길, 강원도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을 내 가슴의 중심에 모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끊임없는 자아 성찰과 기도 생활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김용준 바실리오 | 가톨릭사진가회





김용민 베드로 | 정형외과 의사

소록도에서 만난 검은 피부의 예수님

제가 소록도에 있었던 시간은 1년 3개월로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고, 그로 인해 이후의 제 삶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또 여러 가지 값진 추억들을 가슴속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중보건의로 전남 무안에서 근무하다가 소록도로 자원하여 옮겨가게 되었는데, 제가 소록도를 ‘천국 같았다.’고 회상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검은 얼굴에 늘 선한 장난기가 넘치는 웃는 눈의 소유자, 멕시코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 한조룡 신부님입니다.

병원이나 마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신부님은 차렷 자세로 “의사님!” 하면서 썩 웃으며 거수경례를 하셔서 처음엔 ‘왜 나한테?’하고 놀랐지만, 얼마 뒤부터는 저도 웃음으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직원, 환우들을 마주치면 누구든 정답게 불러 세운 뒤 사탕을 듬뿍 쥐여 주시며 그들을 웃게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미사 중에 꼭 하시던 말씀은 “특히 쏘로 쏘로(서로 서로) 용서하십시오.”였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용서를 강조하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후 많은 관계들을 통하여 용서야말로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 가장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첫 단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신부님은 늘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고, 자신의 이야기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고해성사 때, 하느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이해시키시려고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신 덕에 저는 오래된 냉담의 벽을 허물고, 먼 길을 ‘돌아온 탕자’처럼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저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해에는 두 명의 의사를 포함하여 특별히 많은 섬 동료들이 어느 화창한 일요일에 멕시코 스

타일(?)의 길고 긴 세례 예식을 통하여 일제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신부님께서 간경화가 악화되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위에 많은 사랑을 나눠 주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더 이상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없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뒤에 한 신부님은 또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날 미사에 다녀온 아내가 본당 신부님의 강론 중 “오래전 광주 신학교 시절 나의 스승이신 한조룡 신부님은 남모르게 새끼줄을 동여매어 자신을 고통에서 한 시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면서도 오히려 그 고통을 밖으로는 사랑으로 바꾸어 나눠준 분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며, 갑자기 신부님이 보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조룡 신부님은 이렇게 스스로는 한평생 고통 속에서 보내며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시절에 저를 소록도로 보내 주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사랑을 통해 제 삶에서 커다란 변화와 성장을 얻을 수 있었기에 저는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를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헤느님게서 보시니
소수민드신 모든 것이
침종앗다

창세기 1.31

정은희 마리아
마천동성당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 1 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신철 주교가 추천한 황성호 미카엘 신부(광주대교구, 2004년 사제 수품)를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총무로 임명하였다.
- 2 주교회의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총무 이근덕 헨리코 신부(수원교구, 1994년 사제 수품)의 총무직 연임을 승인하였다.
- 3 주교회의의 상임위원회 2021년 5월 10일 회의에서 김영남 다미아노 신부(의정부교구, 1983년 사제 수품)를 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번역) 신임 총무로 임명한 것을 확인하였다. 김영남 신부의 임기는 전임 신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7월 9일부터 2024년 7월 9일까지이다.
- 4 모든 교구가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에 함께하기로 한 주교회의의 2021년 춘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14개 교구에서 주교회의로 보내온 백신 나눔 기금(25억 원, 2021년 7월 5일 기준)을 교황님께 전달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서울대교구와 대전교구는 백신 나눔 기금을 교황님께 직접 전달하였다. 이후 교구에서 주교회의로 보내오는 백신 나눔 기금은 추후 모아서 교황님께 보내 드릴 예정이다.
- 5 “나의 모든 샘이 네 안에 있네”(시편 87[86].7)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52차 세계성체대회(2021년 9월 5-1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염수정 주교(서울대교구장), 장신호 주교(한국 대표), 신우식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무국장) 등이 참가한다. 염수정 주교는 세계성체대회 기간인 9월 10일(금) 오후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강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주교회의의 상임위원회(2021년 5월 10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세계성체대회는 한국 순례단을 구성하지 않기로 하였다.
- 6 특별 방식으로 개최될 제10차 세계가정대회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상 메시지와 대회 절차를 설명하는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의 공지(2021년 7월 2일 발표)를 각 교구에 안내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로 한 해 연기되어 2022년 6월 22-26일에 “가정의 사랑: 성덕의 소명이자 길”을 주제로 열리는 제10차 세계가정대회는 두 가지 차원으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로마는 대회의 주요 장소이고, 많은 가정 사목 대표들은 가정 대회, 사목 대회 그리

고 미사에 참석한다. 이는 전 세계에 중계될 예정이다. 같은 시기에 각 교구는, 교구의 가정과 공동체를 위한 지역 모임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로마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할 수 없더라도 모든 이가 제10차 세계가정대회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 7 한국-교황청 관계사 발굴 사업을 위해 이용훈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의장), 김종강 신부(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관리국장)가 2021년 6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바티칸사도문서고와 도서관, 국무원 외교 문서고, 인류복음화성 역사 문서고를 방문하여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만나고, 교황청 문서고에 소장된 한국 관련 사료 발굴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는 보고를 들었다. 한편, 한국-교황청 관계사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바티칸사도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1957-1960년의 한국 교황사절 문서와 1949-1960년의 일본 교황사절 문서의 디지털화 작업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정신을 담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전국 사목회의 의안집’(이하 ‘의안집’,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위원회 발행)이 다양한 연구와 토론회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의안집’을 단행본으로 발행하되 주교회의에서 출판하도록 결정하였다.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전국 사목회의 의안집’은 총 13개의 의안(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전례, 신심 운동, 지역 사목, 교리 교육, 가정 사목, 특수 사목, 교회 운영, 선교, 사회,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7년 8월 4일 정낙교 시몬 신부(34세)
- 1990년 8월 4일 김철규 바르나바 신부(72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1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2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교구정일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 미사 취소

8월5일(목) 오후 2시 해외선교후원회 월례 미사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취소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 02)727-2407, 2409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http://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을 통해 접수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1281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날 본당 갖기 미사)

때: 8월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진남포 본당 중화본당 / 매주 봉헌되는 이 미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유튜브: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8월3일 · 9월7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미사 참석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절두산 순교성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여선주 개인전: 1전시실
윤영선 ‘공소에 스미다’: 2, 3전시실
전시일정: 8월4일(수)~9일(월)

2022년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안내

1) 1월~6월: 8월27일(금) 14시, 대성당 (오후 1시 대성당 입구에서 주철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마지막 순서로 배정됩니다(7월~12월: 2022년 1월~2월 중 추첨예정 / 추첨일정 별도 공지)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가을학기 모집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8월2일(월)~27일(금)까지 / 3개월 수업(9월~11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n.site>)

가을학기	실기전문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과정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르코악기 · 국악 · 그레고리오성가(남 · 여) · 성악(남 · 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양상별		

직원모집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도림동) 시설관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분야: 시설관리 0명(계약직)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또는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8월8일(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